

닭질병 살처분 보상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

◇ 정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닭질병에 대한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계업은 생산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종계에 서 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 피해가 커지고 있고, 산란계, 육계에서 뉴캐슬병과 가금티푸스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가 펼치는 방역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고 있다. 각 계종별 공통된 질병에 의한 피해가 심하여 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뉴캐슬병,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뉴캐슬병과 가금티푸스에 대한 백신정책에만 의존할 것인지, 살처분 보상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양계업계에서는 앞서 지적한 닭 질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제도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1. 질병 발생 현황

- 닭뉴캐슬병,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 피해 확산 -

양계 농가에 가장 피해가 큰 질병은 닭뉴캐슬병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40억을 투입하여 부화장과 농가에 닭뉴캐슬병 백신을 보급하는 등 백신정책을 펴온 결과 2000년 120여만수의 발생을 보이던 것이 2001년에는 58만 여수로 발생량이 두 배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2년 들어서면서 감소세는 증가세로 바뀌었고, 2002년 5월말 현재 97만 여수에 닭뉴캐슬병이 발생하여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 2000년 한해 발생량과도 비교할 정도이다.

가금티푸스의 경우 2000년에 725,000수가 발생하여 산란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들어서면서 발생량과 발생건수도 증가하여 735,000수(121건)의 닭에 가금티푸스가 발생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매년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것도 있지만 산란계에서만 발생율이 높다는

기존 통념을 깨고 발생율이 적었던 백색 육계에서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5월까지 가금티푸스 발생량은 307,000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량 25만수에 비하여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금인플루엔자는 2000년 137만수(30건), 2001년 141만수(20건)로 다른 질병에 비하여 발생량이 많지만 다행히도 공식적으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산란계와 종계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은 약병원성이라도 병원성이 점차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지역에서 가금인플루엔자 사독백신을 제조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앞서 제시한 질병 발생수는 정부 공식 통계로 실제 발생량의 10%도 집계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2. 법적인 기반 미약

- 제2종 가축전염병 추백리만 살처분 대상 -

닭뉴캐슬병,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닭뉴캐슬병과 가금인플루엔자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살처분에 있어서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살처분 명령 대상에서



▲ 닭 살처분 보상제도 도입은 양계업계가 꼭 이루어야할 과제이다(사진은 병아리 랜더링 장면).

제외되었다.

즉 국내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도 법 개정 단계를 거쳐야 살처분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제2종 가축전염병 추백리는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이거 확인검사 결과 양성 반응율이 확인검사 마리수의 1% 미만인 경우에만 살처분 대상이고, 농림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제1종 가축전염병(닭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 및 제2종 가축전염병중에서 살처분 대상으로 고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금티푸스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준하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어 살처분 보상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3. 닭질병 발생시 살처분에 대한 의견

1) 살처분과 보상이 시급하다

그 동안 양계업계에서 살처분 보상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지만 정부의 반

응은 냉담하였다.

단지 2000년부터 닭뉴캐슬병의 경우 백신 접종율이 80%를 넘어서야 살처분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신 접종율의 조사 방법을 두고 정부와 양계업계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사이 양계 닭 질병은 매년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농가들의 닭질병과 살처분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충남 아산시 계림종계장 김태환 사장은 살처분 보상대상 질병에 가금인플루엔자, 닭뉴캐슬병, 가금티푸스가 포함되어 가축전염병에 방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금인플루엔자의 경우 약병원성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병원성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김사장의 의견이다. 더구나 가금인플루엔자는 약병원성 이후 고병원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병원성이 강병원성으로 발전하기 전에 적극 차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뉴캐슬병의 경우 5개년 계획을 세워 백신을 공급해 주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백신 공급에만 의존하는 농가 실정으로 질병차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살처분과 동시에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계 부문의 가금티푸스 퇴치를 위해 우선 원종계장과 종계장, 백세미 사육 농가의 가금티푸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화성시 영남농장 최길영 사장은 육계부문에서 살처분 대상 질병은 닭뉴캐슬병과 가금티푸스라고 표명하였다. 가금티푸스의 경

우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이 없이 손실만 늘어가고 있어, 이제 육계업을 이어갈 힘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질병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치 미루고 있다고 격양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육계업은 상반기에 가금티푸스, 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어떤 질병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지 조사가 능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히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방역기관, 약품업계의 협조를 얻어 질병 피해 및 발생 현황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닭 질병 관련 방역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계업계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지역의 경우 올해 방역기금 9천 만원이 사용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3억 이상 예산을 잠정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방역예산 확보에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세워 준다면 그 다음 살처분 보상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방역 기금 예산 확보는 육계업계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8월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 백신 접종으로 질병 발생 최소화한 후 살처분 계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김재홍 과장은 다른 질병을 차치 하더라도 뉴캐슬병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림부,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대한양계협회, 농협, 행정기관(가축위생연구소), (사)대한

수의사회 등의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채택한 사안들을 양계협회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할 시급한 것은 예산 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닭뉴캐슬병 발생 양상으로 보아 신고되지 않은 건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살처분 명령이 발효된다면 현재 5월까지 발생된 뉴캐슬병의 몇 배의 닭을 살처분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액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뉴캐슬병에 대한 살처분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발생량이 적은 8~9월에 살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며, 6~7월에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원장은 닭뉴캐슬병에 대한 백신 접종 방법을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해야 질병 발생을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손원장은 양계장에서 백신 접종 방법을 두고 크게 혼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신종류나 백신프로그램 선택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모니터링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백신프로그램에 있어 육계는 3~5일령에 사독 백신을 하고, 14일령에 생독 백신 접종이 효과적인지. 산란계는 11일령, 21일령에 분무 백신을 하고, 시기적으로 9~4월까지 한 달 한번 스프레이하고, 5~8월중에 한 달 반에 한번씩 스프레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분사 방법에 있어서도 대형 농장의 직립 케이지에 적합한 스프레이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백신종류, 백신프로그램, 백신접종 방법이 농장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 실시되

는 수준에 도달한 후 살처분을 실시한다면 질병 박멸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양계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스프레이 접종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충남 광천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다른 질병은 몰라도 뉴캐슬병은 백신 접종을 정확하게 한다면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외국처럼 뉴캐슬병 발생율이 적다면 당연히 살처분 보상을 해야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전국에 만연된 뉴캐슬병을 살처분한다면 예산보다도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두려워하여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질병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살처분에 따른 보상을 현 시가대로 지급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4. 살처분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닭 질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제도 도입에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질병을 살처분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살처분 보상 전 백신접종 효과를 극대화하여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안에 대하여 시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정부나 방역기관, 일부 수의사가 주장하는 닭뉴캐슬병 백신 접종율이 80%가 넘어야 살처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예산 집행에 따른 부담과 살처분의 부작용을 염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매립지 선택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닭뉴캐슬병 한가지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행되는 예산과, 행정력, 인력, 매립지 선택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질병 발생율을 최대한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질병 방역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질병은 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이다. 이러한 질병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살처분 보상제도 도입과 백신 접종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살처분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발효한 후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살처분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닭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에 대한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착수함에 동시에 살처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오는 9월에 마감하는 내년 정부 예산에 닭 질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을 확보하고 닭 사육 수수에 적합한 백신지원액을 증액해야 한다. 양계 업계에서는 민간 차원의 방역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백신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농림부와 양계업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셋째, 농가에서는 우선 차단방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와 동시에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양계**

음수소독 살균소독 세척소독 약취 및 해충란 제거

콰스톤-X

● 놀라운 음수소독 효과

- 유효성분이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효과가 우수해 음수소독시 설사병, 만성 호흡기질환의 예방은 물론 적절 한사용의 경우 치유 효과가 있으며, 사료효율의 증대와 가스억제, 항생제사용 절감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안전성 공인

- 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EPA, FDA, USDA 안전성 등록

(주) 합성환경

본사문의전화 : (043)536-3342

홈페이지 : www.hsdrq.co.kr

●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균력

-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미 ONYX 미생물연구소 등

● 강력한 침투력과 세척력

- EPA 5% 혈청테스트 통과, 음수라인 니플 막힘 해결

● 경수내구성고 지속효과

- CaCO₃ 750ppm이상 효과적, 안정화된 알킬배치 화학구조

● 약취 및 해충의 유충란 제거

- 탈취효과 및 약취원인균 살멸 유충란 살충효과